

담화론

0에서 1까지, 순서대로 쌓는 국어문법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문법 공부는 건물 짓는 일과 같습니다.

건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파고, 기둥을 박고, 벽을 세우고, 방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비와 인테리어를 합니다.

벽돌 하나는 벽이 되지 못합니다.

옆의 벽돌과 맞물려야 벽이 됩니다.

음운은 형태소와, 형태소는 문장과 맞닿아 있고,

어간은 어근과, 어미는 접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일 핵심적인 것부터 쌓아갑니다.

그렇게 전체를 열 바퀴 돌고 나면,

비워둔 자리는 반드시 채워집니다.

이 책을 펴기 전에

이 책은 구매하신 분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허용되는 것

- 구매하신 본인의 학습에 쓰는 것
- 본인이 보기 위해 인쇄하는 것
-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 말로 정리해 쓰는 것

금지되는 것

-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공유하는 것 (메신저·메일·클라우드 링크 포함)
- 블로그·카페·자료실·SNS 등 온라인에 올리는 것
- 단체·학원·학교에서 복사하여 배포하는 것
- 내용을 재편집·재판매하거나 다른 교재에 옮겨 실는 것
- 이미지로 촬영·캡처하여 배포하는 것

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이 오래 붙들고 만든 것입니다.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알려주시되 파일은 보내지 말아 주세요. 그것이 다음 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만든 이유

하나 · 효율

방학마다 문법 특강이 열립니다. 여덟 번을 배우고 마지막 시간에 체언이 무엇이나 물으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시험 범위가 아니면 붙잡을 이유가 없고, 이유가 없으면 남지 않습니다.

둘 · 순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음운 다음이 곧바로 품사입니다. 형태소를 모르는 채로 어간과 어근을 가르라는 셈입니다.

셋 · 부담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들어갑니다. 자음군 단순화의 예외까지 한꺼번에 넣으니 이해가 아니라 소화불량이 됩니다. 불규칙 활용을 첫 달에 만나면 대개 거기서 놓습니다.

넷 · 범위

학교는 전 범위를 하지 않습니다. 1학기에 음운 변동과 문법 요소, 2학기에 한글 맞춤법과 중세국어. 단어와 문장은 비어 있는 채로 학년이 올라갑니다.

전 범위가 한꺼번에 필요해지는 때는 고2입니다. 비워둔 자리가 그때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각 권을 따로 뒀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권만 보셔도 막히지 않게 썼습니다.

쓰면서 참고한 것

학력평가와 수능의 문법 기출, 지문형 문항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별 교사용 교과서와 자습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여러 교과서에 거듭 나오는 것일수록 본질에 가깝다고 보고, 그런 것을 앞쪽에 두었습니다.

문제 연습은 기출문제집으로 하세요.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을 권합니다. 이 책의 확인문제는 단계마다 대여섯 개뿐입니다. 방금 배운 것을 알고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장치이지 연습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단원을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체를 열 바퀴 돌면서 한 겹씩 올립니다.

구간		하는 일
0 ~ 0.2	땅 파기	바닥을 깊게 팝니다
0.3 ~ 0.6	기둥 세우기	뼈대를 올립니다
0.7 ~ 0.9	방 만들기	벽을 치고 나눕니다
1	인테리어	마지막 손질을 합니다

각 단계 머리에 몇 바퀴째이고 어느 구간인지 적어뒀습니다.

이 책이 문법을 바라보는 세 가지 원칙

1. 문법은 온통 기준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것도 기준입니다.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나누는 것도, 품사와 문장 성분을 나누는 것도 전부 기준이에요.

기준은 자격을 줍니다. 한 사람이 남자이면서 선생님이면서 아버지인 것과 같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이름도 달라져요.

'꽃' 하나를 봅시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이름
무엇을 나타내는가 (의미)	명사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기능)	체언
모양이 변하는가 (형태)	불변어
문장 속 자리는 어디인가 (성분)	주어

넷 다 맞습니다. 하나의 단어에 이름이 네 개 붙은 거예요.

시험에서 틀리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기준을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먹-'은 실질 형태소인가?"라는 질문에 "혼자 못 쓰니까 아닙니다"라고 답하면 틀립니다. **혼자 쓸 수 있느냐는 다른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글자가 같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군밤과 군소리, 묻어와 물어, 그림을 그림 — 이 책에는 이런 짝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묻는 습관**이 문법 공부의 절반입니다.

2. 정의를 정확하게 읽습니다

읽고 [일꼬]

닭고기 [닥꼬기]

같은 받침 **ㄹ**인데 발음이 같립니다. 왜 그럴까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읽고'는 **용언의 어간** '읽-'에 **어미** '-고'가 붙은 말입니다. '다만' 조항에 정확히 걸려요. 그래서 [**일꼬**].

'닭고기'의 '닭'은 명사고, '고기'는 어미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닥꼬기**].

예외를 외운 게 아니라 예외의 조건을 읽은 겁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라는 두 마디를 흘려보내면, 두 발음이 왜 다른지는 영영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나올 때마다 뜻부터 풋니다. **어간(語幹)**의 幹은 줄기, **어미(語尾)**의 尾는 꼬리예요. 줄기는 그대로 있고 꼬리는 움직입니다. 이걸 알면 '변하지 않는 부분·변하는 부분'을 따로 외울 일이 없습니다.

3. 예시가 실력입니다

문법은 규칙을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예시를 많이 본 사람이 이깁니다.**

규칙 한 줄은 시험장에서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시를 수십 개 본 학생은 **처음 보는 단어도 같은 원리로 잘라냅니다.**

그중에서도 **짜를 이루는 예시**가 핵심입니다. 하나만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여요.

짜	무엇이 같았나
읽고 [일꼬] ↔ 닥고기 [닥꼬기]	뒤가 어미냐 아니냐
순가락 ↔ 젓가락	ㄹ이 ㄷ으로 변한 말이나, 사이시옷이나
돋보기 ↔ 돛자리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느냐
군밤 ↔ 군소리	구운 밤이나, 쓸데없는 말이나
땅에 묻어 ↔ 길을 묻어	규칙이나 ㄷ 불규칙이나
그림을 그림	명사냐 명사형이나

같은 자리에 놓고 하나만 다르게 — 이 책이 예시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눈으로 훑지 말고 소리 내서 하나씩 확인하세요.

시리즈 전체 지도

권	제목	이 책이 답하는 질문
1	음운론	왜 쓴 대로 읽지 않을까
2	형태론	이 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3	품사론	이 말은 무엇일까
4	문장론	이 말들이 어떻게 문장이 될까
5	중세국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6	규범론	어떻게 쓰고 읽어야 할까
7	담화론	문장은 맞는데 왜 말이 안 통할까

각 권은 따로 사서 봐도 완결됩니다. 필요한 개념은 그 권 안에서 다시 세워요. 다만 순서대로 보시면 앞 권에서 비워둔 자리가 뒷 권에서 채워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권에 대하여 — 담화론

이 책이 답하는 질문

문장은 맞는데 왜 말이 안 통할까

앞의 다섯 권은 문장 하나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다뤘습니다. 6권 규범론은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적고 읽는가를 다뤘고요.

그런데 우리는 문장을 하나씩 던져놓고 살지 않습니다. 주고받아요.

"여기 좀 출네."

문장만 보면 온도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런데 창문 옆에 앉은 사람에게 한 말이라면 "달아 달라"는 부탁이에요.

문장은 완벽한데 뜻은 문장 밖에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바깥을 다룹니다.

이 책만의 성격 — 여섯 권이 여기서 만납니다

이 책에는 새로 외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시 관형사는 3권에서, 인용절은 4권에서, 높임은 4권에서, 상하 관계는 2권에서 이미 배운 것들이에요. 이 책은 그것들이 실제 말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봅니다.

앞 권 — 이 부품은 무엇인가

이 책 — 그 부품이 실제로 굴러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시리즈의 마지막에 놓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처음 읽어도 됩니다. 앞 권을 안 보셨어도 막히지 않게 그때그때 설명을 붙여뒀어요.

어디에 힘을 주었을까요

구간	무엇	별점
0 ~ 0.2	담화 · 맥락 · 구어와 문어	★★★
0.3	지시 표현	★★★★★
0.4 ~ 0.5	대응 · 생략 · 담화 표지	★★★★★
0.6	높임 · 호칭 · 우리	★★★
0.7	인용	★★★★★
0.8	발화의 기능과 간접 발화	★★★★★
0.9	대화의 원리와 담화 관습	★★★★★
1	담화 지문 읽는 법	★★★★★

★★★★★가 셋입니다 — 0.3 · 0.7 · 0.8. 시험에 나오는 담화 문제의 대부분이 이 셋에서 나옵니다.

고비는 어디일까요

0.7 인용입니다.

바뀌야 할 것이 다섯 가지인데, **한 문장에서 네 개가 동시에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게다가 '자기'를 잘못 쓰는 함정이 늘 달려 와요.

그런데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큰따옴표를 지우고 내 입으로 다시 말해보세요.

말해보면 다섯 가지가 저절로 맞습니다. 0.7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고비는 0.9 대화의 원리입니다.

이름이 많습니다. 협력의 원리 4격률, 공손성의 원리 6격률, 체면 두 종류에 순서 교대 세 규칙 — 다 합치면 열다섯 개예요.

그런데 **빠대는 하나입니다.**

**협력은 잘 전달하려는 것이고, 공손은 안 상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은 자주 충돌한다.**

이 충돌만 잡으면 나머지는 그 주위에 붙습니다. 0.9를 네 층으로 나눠 놓은 것도 그래서요.

■ 앞 권과의 관계

이 책은 **4권 문장론과 가장 많이 겹칩니다**. 인용절 · 높임 · 문장의 종류 · 간접 발화가 전부 4권에 있거든요.

다만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4권 — 이 문장은 어떻게 짜여 있는가 (**구조**)

이 책 — 이 말은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인가 (**의도**)

같은 "방이 지저분하네"를 4권은 **평서문**이라고 하고, 이 책은 **명령**이라고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보는 자리가 다를 뿐이에요.

■ 이 책은 시험에도 쓰입니다

최근 수능은 담화를 계속 냅니다.

2026 수능 38번 · 2026 9월 모평 37번 · 2025 수능 39번 · 2024 수능 38번

그리고 '언어와 매체'의 매체 지문에 **떨린 문법 문항**도 상당수가 담화 개념을 묻습니다. 대용 표현 · 접속 표현 · 직접과 간접 인용 · 명사형 종결 — 전부 이 책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한 군데는 성격이 다릅니다.

0.9 대화의 원리는 '언어와 매체' 기출에 거의 안 나옵니다. **화법**의 영역이거든요. 대신 **화법과 작문 · 내신 · 수행평가**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도 이 책에 넣었습니다. 앞의 아홉 단계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였다면, 0.9는 "그래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예요. **담화를 배우고 여기서 안 끝내면 이상합니다**.

0 문장에서 담화로

START

땅 파기

지어놓은 집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이 있는 자리로요.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앞 권들에서 문장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 그 문장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이 있는 자리로요.

문장과 담화는 무엇이 다를까요

문장 — 형식이 갖춰진 말의 단위

담화 — 실제 상황에서 오간 말

핵심은 '오간'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둘 사이에 상황이 있어요.

담화가 되는 순간 문장만 봐서는 뜻이 안 나옵니다.

"물 좀."

문장으로는 엉망입니다. 서술어가 없어요.

4권 기준으로는 틀린 문장이죠.

그런데 식당에서 이 말을 들으면, 아무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다.

담화에서는 멀쩡한 말이에요.

💡 이 책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문장이 완전한가"를 묻지 마세요. "통했는가"를 물으세요.

담화의 구성 요소 — 넷

요소	무엇
화자	말하는 이
청자	듣는 이
발화	실제로 나온 말
맥락	그 말이 놓인 상황

앞의 셋은 눈에 보입니다. 사람 둘과 말 하나예요.

넷째가 이 책의 전부입니다. 맥락은 눈에 안 보이는데, 뜻을 정하는 건 대부분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단계인 0.1을 통째로 맥락에 씁니다.

★ 발화와 문장은 다릅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다른 발화입니다.

아침에 엄마가 한 "밥 먹었어?" — 안부
저녁에 친구가 한 "밥 먹었어?" — 같이 먹자는 제안

문장은 하나인데 발화는 둘입니다. 문장은 사전에 있는 것이고, 발화는 그 순간에만 있는 것이예요.

좋은 담화의 두 조건

말이 여러 개 모여 담화가 될 때,
아무렇게나 모이면 담화가 안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조건	무엇	어디를 보나
통일성	하나의 주제로 모여 있는가	내용
응집성	앞뒤가 이어져 있는가	형식

통일성은 내용의 문제, 응집성은 형식의 문제입니다.

× "어제 영화를 봤어.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가 세 살이야."
→ 이어주는 말은 있는데(그런데) 주제가 딴 데로 갔음 — 통일성 없음

× "어제 영화를 봤어. 재미있었어. 무서웠어. 슬펐어. 좋았어."
→ 주제는 하나인데 말끼리 안 이어짐 — 응집성 약함

응집성을 만드는 장치가 이 책의 0.4와 0.5입니다. 지시 표현 · 대응 표현 · 접속 표현 · 담화 표지가 전부 그 일을 해요.

💡 지금은 이름만 알아두세요. 0.5 끝에서 이 표를 다시 꺼냅니다.
이 책은 여기에 씨앗을 심고 0.5에서 거둡니다.

왜 문법책이 여기까지 올까요

문법은 원래 문장까지입니다. 음운 → 형태소 → 단어 → 문장.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문장에서 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남습니다.

"내일 시험이야."라는 말을 듣고 왜 놀라나요?
"괜찮아."가 왜 어떤 자리에서는 거절인가요?
"너 몇 살이니?"가 왜 어떤 자리에서는 시비인가요?

전부 문장 밖의 일입니다. 문법을 아무리 정밀하게 해도 여기엔 못 닿아요.

그래서 한 층을 더 쌓습니다. 음운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오는 게 이 시리즈의 길입니다.

음운 → 형태소 → 단어 → 문장 → 담화

이 줄의 마지막 칸이 이 책입니다.

확인문제 0

1. 문장과 담화의 차이를 한 줄로 쓰세요.
2. 담화의 구성 요소 넷을 쓰세요.
3. 그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4. 같은 문장이 다른 발화가 되는 경우를 예로 드세요.
5. 통일성과 응집성의 차이를 쓰세요.
6. "물 좀."이 문장으로는 틀렸는데 담화에서는 멀쩡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7. 음운에서 담화까지의 단위를 순서대로 쓰세요.

START CLEAR

문장에서 담화로

다음 01 · 맥락 — 말 밖에 있는 것

남은 것 10 / 10

0.1 맥락 — 말 밖에 있는 것

말이 놓인 자리를 봅니다. 이 책의 나머지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0에서 넷째 요소라고만 하고 넘어갔던 것을 이제 봅니다.

맥락은 세 겹입니다

맥락	무엇	어디에 있나
언어적 맥락	앞뒤에 오간 말	담화 안
상황 맥락	시간 · 장소 · 관계 · 의도	담화 밖
사회·문화적 맥락	지역 · 세대 · 문화	담화 밖

첫째는 안쪽, 나머지 둘은 바깥쪽입니다. 이 갈림이 시험에 나옵니다.

★ 같은 말이 맥락에 따라 갈립니다

"조금 출구나."

언어적 맥락으로만 읽으면 → 그냥 온도 이야기

상황 맥락(창문이 열려 있고, 창가에 누가 앉아 있음)으로 읽으면 → 달아 달라는 부탁

같은 발화인데 답이 다릅니다. 오해도 여기서 생기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상황 맥락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를 묻거든요.

언어적 맥락 — 담화 안쪽

앞뒤에 오간 말 자체입니다. 가장 다루기 쉬워요. 지문 안에 다 있으니까요.

"어제 산 그 책 재밌어?"

'그 책'이 무엇인지는 앞에서 이미 말했기 때문에 압니다.

앞말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0.3의 지시 표현과 0.4의 대용 표현이 전부 언어적 맥락에 기댑니다.

상황 맥락 — 시간 · 장소 · 관계 · 의도

말이 놓인 자리입니다. 네 가지를 봅니다.

무엇	예
시간	"지금"이 몇 시인가 · "내일"이 며칠인가
장소	"여기"가 어디인가
관계	둘이 상하 관계인가 친구인가
의도	무엇을 하려고 한 말인가

💡 시간과 장소는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 "내일" — 이런 말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말하느냐로만 뜻이 정해집니다.

편지에 "내일 만나자"라고 쓰면 언제 만나는 건지 알 수 없죠. 말한 날이 있어야만 계산이 됩니다.

0.7 인용에서 '내일 → 오늘'로 바뀌는 이유가 이겁니다. 말하는 자리가 옮겨졌으니 계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 잠깐 — 언어는 왜 사회를 담고 있을까요 ★★★★★

세 번째 맥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크게 한 번 짚고 갑니다.

말은 진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와 문화가 배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 언어와 사고 —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고운 말을 쓰면 마음도 고와진다"는 말이 있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입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저기여기'보다 '여기저기'가 자연스러운 이유요.

가까운 것을 먼저 말하려는 생각이 언어에 반영된 겁니다.

사고가 언어를 만든 것이죠.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건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압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언어 능력이 늘면서 사고력도 자라고, 사고력이 자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말을 씁니다. 둘이 같이 갑니다.

💡 20세기 초에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사피어와 워프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언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어요. 이것을 언어 결정론(사피어-워프 가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언어만이 사고를 결정한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대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봅니다. 이런 입장을 언어 상대주의라고 해요.

㉔ 언어와 사회 — 쓰는 사람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국어인데 지역·세대·직업에 따라 말이 달라집니다.

지역이 다르면 — 부추 · 정구지 · 솔 · 염지 · 푸초

세대가 다르면 — "완전 ~각인데" · "억까 아니야?"

직업이 다르면 — 의사끼리는 '경색', 요리사끼리는 '미장플러스'

과거에는 신분이 같았습니다. 양반과 상민, 천민이 쓰는 말이 달랐고, 궁중에서만 쓰는 말도 따로 있었어요. '밥'을 '수라'라고 한 것처럼요.

💡 '영감'의 뜻이 변한 것도 사회 때문입니다.

원래 정삼품·종이품 벼슬아치를 높여 부르던 말이었습니니다. 그런데 그 벼슬 제도가 사라졌죠.

그러자 "지체가 높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로 넓어졌다가, 지금은 나이 많은 남자를 두루 이릅니다.

말이 가리키던 것이 없어지면 말은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③ 언어와 문화 — 사는 방식이 어휘에 남습니다

어떤 것을 자세히 나누는 언어는, 그것이 그 사회에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영어	왜
벼 · 쌀 · 밥	rice (하나)	쌀이 주식이라 단계마다 이름이 필요했음
호미 · 팽이 · 쟁기 · 도리깨	—	농경 사회였기 때문
너 · 자네 · 당신 · 귀하 · 선생님	you (하나)	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의 언어**에는 내리는 눈 · 내려앉은 눈 · 땅 위에 쌓여 굳은 눈을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바람의 종류**를 방향과 세기에 따라 잘게 나눕니다.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적 산물이면서 동시에 문화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 사라진 말도 사회를 알려줍니다.

이조 · 병조 · 정승 · 판서 · 참판 — 조선의 관청과 벼슬 이름입니다. **제도가 사라지자 말도 사라졌어요.**

반대로 **누리집 · 통신망 · 가상 현실 · 누리 소통망**은 정보 통신 기술이 생기면서 새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어휘 목록만 봐도 그 시대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새로 생긴 말도 사회를 비춥니다

'집밥'과 '혼밥'을 보세요.

예전에는 '집밥'이라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밥은 원래 집에서 먹는 것이었으니까요. **밖에서 사 먹는 일이 흔해지고 나서야** '집에서 먹는 밥'을 따로 부를 이름이 생긴 겁니다.

'혼밥'도 같습니다. 함께 먹는 것이 당연했을 때는 **혼자 먹는 것에 이름이 없었어요.**

없던 말이 생겼다는 건, 없던 구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1인 가구가 늘고, 바빠지고, 핵가족이 되면서 이 두 말이 필요해졌습니다. 어휘 목록이 **사회의 변화**를 기록한 것이죠.

★ 속담을 견주면 문화가 보입니다

같은 뜻인데 재료가 다릅니다.

우리 속담	영어 속담	무엇이 다른가
시장이 반찬	Hunger is the best sauce .	반찬 ↔ 소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떡 ↔ 잔디

뜻은 거의 같은데 비유의 재료가 그 사회의 것입니다. 우리는 반찬과 떡으로 말하고, 영어권은 소스와 잔디로 말해요.

💡 속담은 그 사회에서 가장 흔한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흔해야 누구나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속담의 재료를 보면 그 사회에 무엇이 흔했는지가 보입니다.

★ '시원하다' — 외국인이 가장 의아해하는 말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뜨거운데 왜 시원하냐는 거죠.

'시원하다'의 뜻이 여러 겹이기 때문입니다.

뜻	예
① 온도 — 알맞게 서늘하다	시원한 바람
② 음식 맛 — 국물이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다	시원한 국물
③ 마음 — 답답하지 않고 후련하다	속이 시원하다
④ 언행 — 막힘이 없다	대답이 시원하다

①에서 출발해 ②③④로 뻗어 나간 다의어입니다. 뜨거운 국의 '시원하다'는 ②번이고요.

한 단어가 온도에서 마음까지 건너갔습니다

💡 다의어는 그 사회가 무엇을 연결지어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몸의 감각과 마음의 상태를 같은 말로 씁니다. "속이 시원하다" · "가슴이 답답하다" · "마음이 무겁다".

감각어가 감정으로 확장되는 것 — 이게 우리말 어휘의 큰 특징이에요.

⚠ 이 셋이 왜 담화론에 있을까요

담화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사회와 문화를 담고 있다는 걸 모르면, 왜 어떤 말이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1단계에서 다룰 '언어 주체의 책임감'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사회·문화적 맥락 — 지역 · 세대 · 문화

같은 말을 쓰는데 배경이 달라 안 통하는 경우입니다.

지역 — "아버지, 정구지 좀 사다 주세요." (경상도에서 '부추')
세대 — "그거 완전 ~각인데" · "억까 아니야?"
문화 — 영어권에서 "How are you?"에 진짜 건강 상태를 답하면 어색함

관용 표현과 속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 참 손이 크네." — 손 크기 이야기가 아님
"미역국 먹었어." — 시험에 떨어졌다는 뜻

단어 뜻을 다 알아도 못 알아들えます. 그 사회에서 그렇게 쓰기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통해요.

★ 관용 표현 — 뜻이 통째로 굳은 말

둘 이상의 단어가 붙어 원래 뜻과 다른 뜻이 된 말입니다.

관용 표현	뜻
발이 넓다	아는 사람이 많다
손을 씻다	나쁜 일을 그만두다
간이 크다	겁이 없다
미역국을 먹다	시험에 떨어지다
바가지를 긁다	잔소리를 하다
눈이 높다	기준이 까다롭다

특징이 셋입니다.

- ① 단어를 하나씩 풀면 뜻이 안 나옵니다. '발'과 '넓다'를 아무리 봐도 '아는 사람이 많다'는 안 나와요.
- ②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발이 크다'나 '다리가 넓다'로 하면 뜻이 사라집니다.
- ③ 그 언어권에서만 통합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 관용 표현은 사회·문화적 맥락이 단어에 굳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엔 누군가 비유로 한 말이었을 텐데, 오래 쓰이면서 뜻이 통째로 사전에 들어간 거예요.

★ 속담 — 문장으로 굳은 것

관용 표현이 구(句)라면 속담은 문장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일이 벌어진 뒤에 대비한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말조심하라

속담은 대개 조언이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드러나요.

"그러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 나무람
"낮말은 새가 듣는다잖아." → 경고

💡 담화에서 속담은 직접 말하기 부담스러운 것을 대신합니다.
"네가 미리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하면 상할 말을, 속담으로 돌리면 부드러워져요.
0.8의 간접 발화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 맥락을 놓치면 대화가 어긋납니다

승객 1: "내립시다." (비켜 달라는 뜻)
승객 2: "전 이번에 안 내리는데요." (청유문 그대로 알아들음)
승객 1: "좀 비켜 달라고요!"

승객 2는 언어적 맥락만 읽었습니다. 붐비는 버스라는 상황 맥락을 빼놓은 거예요.

어느 맥락을 놓쳤는지가 곧 오해의 원인입니다. 문제에서 "왜 대화가 어긋났는가"를 물으면 빠뜨린 맥락을 찾으시면 됩니다.

확인문제 0.1

1. 맥락 세 가지를 쓰고, 담화 안쪽인 것과 바깥쪽인 것을 가르세요.
2. 상황 맥락의 네 가지 요소를 쓰세요.
3. "조금 चुकु나"가 두 가지로 읽히는 이유를 맥락으로 설명하세요.
4. 편지에 "내일 만나자"라고만 쓰면 안 되는 이유는?
5. 사회·문화적 맥락 때문에 안 통하는 예를 하나 드세요.
 - 5-1.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여기저기'와 '고운 말'을 각각 예로 들어 설명하세요.
 - 5-2. 언어 결정론(사피어-워프 가설)이 지금은 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 5-3. 영어의 'rice'가 우리말에서는 '벼·쌀·밥'으로 갑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 5-4. '영감'의 뜻이 변해 온 과정을 쓰고, 그 이유를 사회의 변화로 설명하세요.
6. 위 버스 대화에서 승객 2가 놓친 맥락은 무엇인가요?
7. 관용 표현의 특징 세 가지를 쓰세요.
8. '발이 넓다'를 '다리가 넓다'로 바꾸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9. 관용 표현과 속담의 차이를 쓰세요.
10. 담화에서 속담이 하는 일을 간접 발화와 연결해 설명하세요.

STAGE 01 CLEAR

맥락 — 말 밖에 있는 것

다음 02 ·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

남은 것 9 / 10

0.2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

말과 글은 버릇이 다릅니다. 그 버릇을 정리합니다.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말로 하느냐 글로 쓰느냐에 따라 담화의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구어 담화	문어 담화
무엇	일상 대화 · 발표 · 전화	신문 기사 · 안내문 · 보고서
준비	즉석에서	다듬어서
기록성	낮음	높음
되돌리기	안 됨	됨
달린 것	표정 · 몸짓 · 억양	글자만

갈림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 되돌릴 수 있느냐.

구어 담화의 버릇 여섯

시험이 이걸 묻습니다.

특징	예
줄임말	그런데 → 근데 · 나는 → 난
어순 뒤집기	"대단하네, 그 사람." · "다 왔네, 교무실에."
성분 생략	"뭐?" · "정말?" — 필수 성분도 자주 빠짐
군말	어 · 저 · 뭐랄까 — 뜻은 없고 시간을 벌
몸짓과 표정	고개를 끄덕임 · 손짓
짚은 화제 전환	"참, 그런데 너..."

말은 되돌릴 수 없어서 이렇게 됩니다. 생각하면서 동시에 말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구어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 다만 글로 옮길 때는 정리해야 합니다.

6권 규범론 0.9의 '정확한 문장 표현'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구어에서 봐주던 것을 문어에서는 안 봐줍니다.

★ 어순 뒤집기를 다시 보세요

"다 왔네, 교무실에."

4권 기준으로는 부사어가 서술어 뒤에 갔으니 **어순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구어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왜 이럴까요. 급한 것부터 말하고 나머지를 뒤에 붙이는 겁니다. **말은 앞에서부터 나가야 하니까요.**

글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문장을 다 짜놓고 한꺼번에 내보낼 수 있거든요.**

문어 담화의 버릇 — 명사형 종결

뉴스와 신문 기사는 문장을 명사로 끝내는 일이 많습니다.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

서술어를 쓰지 않고 명사로 꼭 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짧아지고, 대상에 시선이 모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식	예	무엇을 얻나
명사형 종결	주의가 필요 .	짧음 · 주체를 안 드러냄
피동	대책이 마련되었다 .	주체를 안 드러냄
표제 · 소제목	규제 강화에 입장 차이	한눈에 보임

💡 **신문 표제를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대부분 명사로 끝납니다.
 글은 되돌려 읽을 수 있어서 이렇게 줄여도 통합니다. 말로 하면 안 되죠.

담화의 갈래 — 자리마다 말투가 다릅니다

구어와 문어로만 가르면 너무 성급합니다. 실제로는 **자리에** 따라 더 잘게 갈려요.

갈래	화자 → 청자	특징
대화	한 사람 ↔ 한 사람	순서를 주고받음 · 생략이 가장 많음
발표 · 강연	한 사람 → 여럿	순서를 독점 함 · 구어인데 준비됨
토론	여럿 ↔ 여럿	규칙이 정해져 있음 · 반박이 전제
협상	이해가 걸린 양쪽	서로 양보하며 합의 를 만듦
안내문 · 공고	기관 → 불특정 다수	명사형 종결 · 높임의 상대가 뭉뚱그려짐
기사	기자 → 독자	표제 · 인용이 많음
광고	판매자 → 소비자	간접 발화가 많음
인터넷 게시물 · 댓글	누구나 ↔ 누구나	구어와 문어가 섞임

★ 두 축으로 보면 정리됩니다

- ① 청자가 정해져 있는가 — 대화는 정해져 있고, 안내문은 아닙니다
- ② 순서를 주고받는가 — 대화와 토론은 주고받고, 발표와 기사는 한쪽만 말합니다

	순서 주고받음	한쪽만 말함
청자가 정해짐	대화 · 토론	발표 · 강연
청자가 안 정해짐	댓글	안내문 · 기사 · 광고

★ 토론과 협상은 다릅니다

둘 다 의견이 갈릴 때 하는 말하기인데 방향이 반대예요.

토론		협상
무엇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자기 주장이 옳고 상대가 부당함 을 밝힘	이해가 충돌하는 당사자들이 대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함
관계	경쟁적	경쟁 - 협력적
목적	주장과 설득	갈등 조정과 합의

협상이 특이합니다. 서로 이익이 부딪히는데도 **협력해야만 합의에 이릅니다.** 한쪽이 안 받아들이면 합의가 안 되니까요.

💡 그래서 협상에는 **0.9의 공손성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상대를 이기려고만 들면 **합의 자체가 깨집니다.**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끝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 청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말이 딱딱해집니다.

누가 읽을지 모르니 **가장 안전한 높임**을 쓰고, **생략을 줄이고**, 문장을 다듬어요.

반대로 대화는 상대를 아니까 **마음껏 생략**합니다.

★ 인터넷 글이 특이합니다

구어의 버릇을 글로 씁니다.

"ㅋㅋ 그거 진짜 웃김" · "아 근데 이건 좀..." · "ㅇㅈ"

줄임말 · 군말 · 생략 — 0.2 앞에서 본 구어의 특징 그대로인데 **글로 쓰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은 되는데 **주고받는 속도가 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되돌려 읽을 수는 있지만, 쓰는 사람은 **즉석에서** 쓰거든요.

💡 구어나 문어나를 '말이나 글이나'로만 가르면 여기서 막힙니다.

다듬을 시간이 있었느냐로 보세요. 그게 진짜 기준입니다.

★ 이 항목이 '매체' 문제로 나옵니다

'언어와 매체'의 매체 지문에 딸린 **문법 문항**은 대개 이렇게 묻습니다.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선지에 **명사형 종결 · 피동 표현 · 대용 표현 · 접속 표현**이 나옵니다. 전부 이 책에 있는 것들이예요.

발문에 '언어적 특성'이라는 말이 없어도 선지가 문법 개념이면 같은 문제입니다.

■ 확인문제 0.2

1.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2. 구어 담화의 특징을 네 가지 이상 쓰세요.
3. "다 왔네, 교무실에."가 구어에서 자연스러운 이유를 설명하세요.
4. 명사형 종결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쓰세요.
5. 명사형 종결과 피동 표현의 공통된 효과는 무엇인가요?
6. 구어의 생략이 규범론 0.9에서는 왜 문제가 되나요?
7. 담화의 갈래를 가르는 두 축을 쓰세요.
8. 청자가 정해지지 않은 담화에서 말이 딱딱해지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9. 인터넷 게시글이 구어와 문어 중 어느 쪽인지 답하고, 그렇게 판단한 기준을 쓰세요.
10. 토론과 협상의 차이를 목적과 관계 두 가지로 쓰세요.

STAGE 02 CLEAR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

다음 03 · 지시 표현

남은 것 8 / 10

책을 덮고 시작하세요. 담화를 이루는 네 요소를 세우고, 그중 맥락 아래에 세 겹을 달아보세요.

힌트 — 넷 중 눈에 안 보이는 것 하나가 이 책의 전부입니다.

담화

- 다 그렸나요? — 이제 확인하세요. 빠진 항목 옆의 번호가 돌아갈 단계입니다.
- ☐ 문장과 담화의 차이 0

☐ 담화의 구성 요소 넷 0

☐ 같은 문장이 다른 발화가 되는 경우 0

☐ 통일성과 응집성 0

☐ 맥락 세 겹 · 안과 밖 0.1

☐ 상황 맥락의 네 요소 0.1

☐ '내일'이 편지에서 안 통하는 이유 0.1

☐ 관용 표현의 특징 셋 0.1

☐ 관용 표현과 속담의 차이 0.1

☐ 구어 담화의 버릇 넷 이상 0.2

☐ 담화의 갈래를 가르는 두 축 0.2

☐ 명사형 종결이 얻는 것 0.2

0.3 지시 표현

★★★★★

CHAPTER 03 / 10

기둥 세우기

가리키는 법.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담화 문제의 절반이 여기서 나옵니다.

3권에서 '이/그/저'를 지시 관형사로 배웠죠.

품사가 무엇인지는 3권의 일이고,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담화의 일입니다.

기준은 거리 하나뿐입니다

	화자에게	청자에게
이	가깝다	
그	멀다	가깝다
저	멀다	멀다

'이'는 나에게 가까운 것, '그'는 너에게 가까운 것, '저'는 둘 다에게서 먼 것입니다.

영미: "이 책은 너무 따분해. 수철아, 그 책 다 읽었니?"

수철: "이 책을 다 읽으려면 아직 멀었어. 저 책을 읽어 봐."

영미의 '이 책'과 수철의 '그 책'은 같은 책입니다. 영미 손에 있으니까요. 수철의 '이 책'과 영미의 '그 책'이 또 한 짝이고요.

말하는 사람이 바뀌면 이름표가 바뀝니다.



문제를 풀 땐 그림을 그리세요.

점 세 개 — 화자 · 청자 · 대상. 거리만 재면 답이 나옵니다.

지시 표현의 갈래

무엇을 가리키나	표현
사물	이것 · 그것 · 저것
장소	여기 · 거기 · 저기
사람	이분 · 그분 · 저분
때	이때 · 그때
상태	이렇다 · 그렇다 · 저렇다

전부 이 · 그 · 저 셋에서 나왔습니다. 뒤에 무엇이 붙느냐만 다를 뿐이에요.

★ 가리키는 것이 앞에 있나 뒤에 있나

지시 표현은 방향으로도 갈립니다.

	지시 대상이 어디에	예
선행 지시	지시어보다 앞 선 발화에	"어제 영화를 봤어. 그거 진짜 재밌더라."
후행 지시	지시어보다 뒤 에 나타남	" 이것 만 기억해. 내일 아홉 시야."

대부분은 선행 지시입니다. 앞에 나온 것을 다시 가리키는 게 자연스러우니까요.

💡 **후행 지시는 힘이 셉니다.**

"이것만 기억해"라고 먼저 던지면 **듣는 사람이 "뭔데?" 하고 기다립니다.**

4권에서 본 마틴 루서 킹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와 같은 원리예요. **먼저 던지고 나중에 채우는 것**입니다.

★ '그'는 일을 두 개 합니다

여기가 가장 잘 나오는 함정입니다.

'이'와 '저'는 **눈앞에 있는 것**만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 더 해요.

- ① 청자 가까이 있는 것 — **눈에 보임**
- ② 앞서 말한 것 · 서로 아는 것 — **눈에 안 보임**

"저기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고 다섯 번째에 내리면 편의점이 있어. 거기서 골목으로 조금 가면 바로 그곳이야."

'저기'는 지금 보이는 곳이고,
'거기'와 '그곳'은 말로만 세워둔 곳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저기'라고 하면 틀립니다.

★ '저'는 둘 다에게 멀되, 둘 다 보여야 합니다

"저건 언제?" — 진열대의 운동화, 둘 다 보임 ✓

"전에 같이 갔던 매장, 거기 가보자." — 안 보임 → '저기'가 아니라 거기 ✓

멀다고 무조건 '저'가 아닙니다. 눈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로 넘어갑니다.

💡 판별 순서

- ① 지금 보이는가 → 안 보이면 무조건 그
- ② 보인다면 누구에게 가까운가 → 나면 이, 너면 그, 둘 다 아니면 저

★ 왼쪽·오른쪽은 기준이 뒤집힙니다

거리만 재는 게 아니라 방향도 담화의 문제입니다.

"영화관 정문 왼쪽에 있는 분식집으로 와."

"왼쪽이면 편의점 아냐? 아, 영화관을 등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구나."

영화관을 마주볼 때는 오른쪽 맞지?"

같은 곳인데 왼쪽이기도 하고 오른쪽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보고 서 있느냐가 다르니까요.

💡 이/그/저는 거리, 왼쪽/오른쪽은 방향.

둘 다 말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방향을 말할 때는 기준이 되는 몸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같이 잡아야 합니다.

★ 연습 — 짧은 대화 하나

수아: 어제 빌려준 책 말인데, ㉠그거 다 읽었어?

준호: 아직. ㉡이거 생각보다 어렵더라.

수아: 어렵지? ㉢저기 도서관에 해설서도 있던데 같이 볼래?

준호: ㉣거기 말고 학교 앞 서점에 가자.

	누구에게 가까운가	보이는가	판정
㉠ 그거	준호(청자)에게	보임	청자 쪽 → 그 ✓
㉡ 이거	준호(화자)에게	보임	화자 쪽 → 이 ✓
㉢ 저기	둘 다에게서 멀	보임	창밖의 도서관 → 저 ✓
㉣ 거기	—	안 보임	앞에서 말한 곳 → 그 ✓

㉠과 ㉡은 같은 책임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바뀌면서 이름표만 바뀌었어요.

㉢과 ㉣도 같은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은 보고 가리킨 것이고 ㉣은 앞말을 받은 것이라 다른 말이 쓰였습니다.

💡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정확한 지점입니다.

"㉠과 ㉡이 가리키는 대상은 같다" — 맞음

"㉢과 ㉣이 가리키는 대상은 다르다" — 틀림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이 다르다고 대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 시간에도 이/그/저가 있습니다

이때 — 지금 말하는 시점 근처

그때 — 앞에서 말한 시점

절때 — 꽤 지난 과거 (입말)

'저때'는 잘 안 씁니다. 시간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면 '그'로 간다는 원리 그대로입니다.

확인문제 0.3

1. 이 · 그 · 저를 가르는 기준을 쓰세요.
2. 영미의 '그 책'과 수철의 '이 책'이 같은 책인 이유를 설명하세요.
3. '그'가 하는 두 가지 일을 쓰세요.
4.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저기'라고 하면 왜 틀리나요?
5. 지시 표현 문제를 풀 때 그려야 할 점 세 개는 무엇인가요?
6. 같은 곳이 왼쪽도 되고 오른쪽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7. '저때'를 잘 안 쓰는 이유를 '그'의 원리와 연결해 설명하세요.
8. 연습 대화에서 ㉠ '저기'와 ㉡ '거기'가 같은 곳인데 다른 말이 쓰인 이유를 설명하세요.
9. "말이 다르면 가리키는 대상도 다르다"는 말이 왜 틀렸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9-1. 선행 지시와 후행 지시의 차이를 쓰고, 후행 지시가 왜 힘이 센지 설명하세요.

STAGE 03 CLEAR

지시 표현

다음 04 · 대응과 생략 — 응집성의 두 축

남은 것 7 / 10

0.4 대용과 생략 — 응집성의 두 축

대신 놓거나 비워서 있습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0에서 심어둔 '응집성'을 여기서부터 거둡니다.

담화가 이어지려면 **앞말과 뒷말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크게 둘이고요.

대용 — 앞말을 다른 말로 받는다
생략 — 앞말을 아예 안 쓴다

하나는 대신 놓고, 하나는 비웁니다. 둘 다 같은 일을 해요 — **같은 말을 두 번 하지 않는 것.**

대용 표현 — 두 번 말하지 않기

원세: "일기예보에서는 날이 풀린다고 하던데."
지완: "나도 **그렇게** 뉴스에서 들었거든."

'그렇게'가 **앞 문장을 통째로**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나	표현
사물	그것 · 이것
장소	거기 · 그곳
때	그때
앞 문장 전체	그렇게 · 그러다 · 그러하다

마지막 줄을 보세요. 문장 하나를 통째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대용 표현의 힘입니다.

★ 상의어로 받기도 합니다

지시 표현이 아니어도 대응이 됩니다.

"저기 버스 온다." → "차에 사람이 많아 보여."

'차'는 '버스'의 상의어입니다.

2권에서 본 상하 관계가 담화에서 이렇게 쓰여요.

"장미 좀 봐." → "꽃이 참 예쁘네."

"아버지께서 오셨어." → "어른이 오셨으면 인사드려야지."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글이 세련되어 보이는 이유 중 하나예요.

💡 거꾸로는 잘 안 됩니다.

"차 온다" → "버스에 사람이 많네"는 어색해요. 넓은 말로 받는 건 되는데 좁은 말로 받는 건 안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뒤에서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 '그렇다'가 대응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앞말을 받는 게 아니라 말을 흐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그래." — 앞말에 동의 (대응)

"다시 분담하기가 좀 그러네." — 부정적인 뜻을 돌려 말함 (완곡)

두 번째가 특이합니다. '그렇다'가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말하기 곤란한 것을 대신하고 있어요. "곤란하다 · 내키지 않는다"를 직접 말하지 않은 겁니다.

"옷이 좀 그렇지 않니?" — 별로다

"분위기가 그래서 말을 못 했어" — 어색해서

0.8에서 배울 간접 발화와 같은 자리예요. 직접 말하기 부담스러우니 흐린 겁니다.

💡 앞에 받을 말이 있는지 보세요.

있으면 대응, 없으면 완곡입니다.

생략 — 빼도 통하는 것

철수: "대신 이 과자라도 먹을래?"

영희: "먹을래."

"나는 그 과자를 먹을래"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듣지 않아요.

맥락이 채워주니까요.

한국어는 특히 생략이 많은 말입니다. 주어가 빠진 문장이 어색하지 않은 언어가 그리 많지 않아요.

★ 왜 생략할까요 — 이유가 둘입니다

① 경제성 — 맥락으로 알 수 있는 말을 빼서 노력을 줄입니다

② 정보성 — 중요한 말을 살리고 나머지를 빼서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해 줍니다

㉓가 급소입니다.

질문 — "그런데 왜 실패의 이점을 말하려 하느냐고 물으시겠죠?"

답 — "바로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벗어 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은"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넣어도 되는데 안 넣었죠.

빼니까 '실패'가 앞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것만 남기면 그것이 더 도드라져요.

💡 생략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무엇을 뺄지 고르는 것이 곧 무엇을 강조할지 고르는 일입니다.

4권에서 본 "무엇을 홀문장으로 떼어 낼지가 무엇을 강조할지를 정한다"와 같은 이야기예요.

★ 규범론 0.9의 생략과 반드시 갈라야 합니다

같은 '생략'인데 판정이 반대입니다.

	규범론 0.9의 생략	담화의 생략
맥락이	못 채움	채움
판정	잘못된 문장	자연스러운 말

× "이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 무엇이 저렴한지 못 채움 — **잘못된 생략**

✓ (과자를 내밀며) "먹을래?" — "**먹을래.**"

→ 무엇을 먹는지 다 알고 있음 — **자연스러운 생략**

기준은 하나예요 — 복원되는가.

 **문제에서 두 용어가 같이 나오면 반드시 이 기준으로 가르세요.**

빠진 것을 **되살릴 수 있으면** 담화의 생략, **되살릴 수 없으면** 문장의 오류입니다.

확인문제 0.4

1. 응집성을 만드는 두 방법을 쓰세요.
2. 대용 표현이 받을 수 있는 것 네 가지를 쓰세요.
3. 상의어로 받는 예를 하나 만드세요.
4. "차 온다" → "버스에 사람이 많네"가 어색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5. '그렇다'가 대용인지 완곡인지 가르는 방법을 쓰세요.
6. "다시 분담하기가 좀 그러네"의 '그러네'는 무엇을 대신하고 있나요?
7. 규범론 0.9의 생략과 담화의 생략을 가르는 기준 하나를 쓰세요.
8. 생략이 일어나는 이유 두 가지를 쓰고, 특히 ㉠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세요.

STAGE 04 CLEAR

대응과 생략 — 응집성의 두 축

다음 05 · 담화 표지와 접속 — 길잡이

남은 것 6 / 10

0.5 담화 표지와 접속 — 길잡이

길잡이를 세웁니다. 0에서 심어둔 것을 여기서 거둡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0.4가 '같은 말을 안 하는 법'이었다면, 0.5는 '길을 알려주는 법'입니다.

담화 표지 — 뜻은 열고 역할은 큼니다

"그나저나 너, 다음 주에 제출할 작품은 다 완성했니?"

'그나저나'를 빼도 문장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화제가 바뀐다는 신호**가 사라져요.

표지	하는 일
그런데 · 그나저나 · 참	화제 전환
그래서 · 그러니까	인과 · 정리
아무튼 · 어쨌든 · 하여튼	마무리 · 화제 닫기
저기 · 있잖아 · 그...	주의 끌기 · 땀 들이기
말하자면 · 그러니까	바꿔 말하기

문장 성분으로 보면 **독립어나 접속 부사어**입니다.

그런데 담화에서는 **길잡이** 노릇을 해요.



담화 표지는 내용을 나르지 않습니다. 방향을 나릅니다.

"이제 다른 얘기 할게", "여기서 정리할게", "잠깐 기다려" —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 말이 아닌 담화 표지도 있습니다

시험은 담화 표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휘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지만,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

그리고 두 갈래로 나눕니다.

갈래	무엇
언어적 담화 표지	그런데 · 아무튼 · 다시 말해서 — 말로 된 것
언어 외적 담화 표지	몸짓 · 표정 · 손짓 · 억양 · 어조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담화 표지입니다. 0.2에서 구어 담화의 특징으로 본 '몸짓과 표정'이 여기서 이름을 얻어요.

★ 언어 외적인 것은 다시 둘로 갈립니다

말에 붙어 있느냐, 말 밖에 있느냐로 나눕니다.

	무엇	예
준언어적 표현	언어 표현에 결합하여 의미 전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	말소리 크기 · 높낮이 · 장단 · 속도 · 억양 · 어조
비언어적 표현	언어·준언어를 제외하고 의미 전달에 쓰이는 수단	표정 · 시선 · 손짓 · 몸짓 · 옷차림 · 보조 자료

'준(準)'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억양과 어조는 **말소리에 얹혀** 있어요. 말을 안 하면 억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표정과 몸짓은 말을 안 해도 있죠.

"괜찮아." — 밝게 올려 말하면 정말 괜찮은 것
"괜찮아..." — 낮게 끌어내리면 안 괜찮은 것

같은 단어인데 뜻이 반대입니다. 바꾼 건 억양 하나예요.

💡 0.9의 함축과 이어집니다.

"참 잘~했다"가 비꼬이 되는 건 **글자 때문이 아니라 어조 때문**입니다. **준언어가 격률을 어기는 신호 노릇**을 해요.
글로 옮기면 이게 사라져서 문자 메시지가 자주 오해를 부르는 겁니다.

★ 역할은 여섯으로 정리됩니다

예고 · 강조 · 요약 · 예시 · 열거 · 부연

역할	표현
예고	이제부터 · 먼저 말씀드리면
강조	특히 · 무엇보다
요약	결국 · 정리하자면
예시	예를 들어 · 이를테면
열거	첫째 · 다음으로
부연	다시 말해서 · 그러니까

 기출은 이 여섯 중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여가 생활은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가는 자유입니다."

앞말을 **풀어서 다시 말했으니 부연**입니다. 새 내용을 더한 게 아니에요.

 요약과 부연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요약은 여러 개를 **줄이는** 것, **부연**은 하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 같은 말이 표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비가 왔다. 그래서 소풍이 취소됐다." — **접속 부사** (인과를 실제로 나타냄)

"그래서, 오늘 뭐 할 거야?" — **담화 표지** (앞과 인과가 없음. 말을 잇는 신호일 뿐)

앞뒤에 진짜 인과가 있는지 보세요. 없으면 표지입니다.

접속 표현 — 관계를 밝히는 것

담화 표지가 '방향'이라면 **접속 표현**은 '관계'입니다.

관계	표현
나열	그리고 · 또한
대조	그러나 · 하지만 · 반면에
인과	그래서 · 따라서 · 그러므로
전환	그런데 · 한편
예시	예를 들어 · 이를테면
요약	즉 · 다시 말해 · 요컨대

글에서는 접속 표현이, 말에서는 담화 표지가 더 많이 쓰입니다. 글은 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하고, 말은 흐름만 알려주면 되거든요.

★ 응집성 — 0에서 심은 씨앗을 거둡니다

0에서 통일성과 응집성을 나눴습니다. 이제 응집성을 만드는 장치가 전부 나왔어요.

장치	어디서 배웠나	하는 일
지시 표현	0.3	앞뒤의 것을 가리켜 묶음
대응 표현	0.4	앞말을 대신 받음
생략	0.4	아는 것을 비움
접속 표현	0.5	앞뒤 관계를 밝힘
담화 표지	0.5	흐름의 방향을 알림

다섯 개가 전부 형식의 문제입니다. 내용을 하나로 모으는 건 통일성이고, 이 다섯은 그 내용을 이어 붙이는 일을 해요.

★ 시험이 쓰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응집성이란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형식상 특정한 장치에 의해 연결되는 것

그리고 장치를 셋으로 묶습니다.

장치	예
㉠ 연결어 — 지시 표현 · 접속 부사	이것 · 그러나 · 그래서
㉡ 유사한 어휘나 표현의 반복	앞 문장의 말을 다시 씀
㉢ 순서나 과정을 드러내는 어휘	먼저 · 다음으로 · 그다음 · 마지막으로

㉡와 ㉢이 새로 나온 것입니다.

㉡ 반복 — 앞에서 쓴 말을 그대로 또 쓰는 것도 있는 방법입니다. 0.4에서 "같은 말을 두 번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부러** 반복하면 그게 오히려 묶어주는 끈이 돼요.

㉢ 순서 어휘 — 설명문이나 안내문에서 특히 많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구상합니다. **다음으로** 치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자릅니다."

앞뒤가 순서로 묶입니다. 지시어도 대응도 없는데 이어져 있죠.

 기출은 이 셋을 나눠 놓고 "㉡와 ㉢이 모두 나타난 것"을 고르게 합니다.
그러니 **연결어 · 반복 · 순서 어휘**를 각각 따로 표시하며 읽으세요.

 '통일성'은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다만 문법 시험에서 실제로 묻는 것은 거의 **응집성** 쪽입니다. 통일성은 작문 영역에서 다뤄요.

★★★ 담화에도 뼈대가 있습니다 — 담화 구조 ★★★★★

응집성이 '무엇을 말하나'이고 응결성이 '어떻게 잇나'라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담화 구조 — 담화를 이루는 내적인 구성
화자의 사고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표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담화의 종류마다 즐겨 쓰는 뼈대가 있습니다.

담화	자주 쓰는 구조
설득하는 담화	서론-본론-결론 · 문제-해결 · 주장-근거
설명하는 담화	나열 · 비교·대조 · 순서
기사문	표제-부제-전문-본문-해설

★ 그런데 구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시해 줍니다. 이것 담화 구조 표지라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행복과 어려움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청소년기를 행복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기의 행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찾는 것입니다. ...

둘째,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

표지	하는 일
다음과 같은	뒤에 여러 개가 나열될 것을 미리 알림
첫째 · 둘째	정보가 나열된 순서를 보임
먼저 · 다음으로 · 마지막으로	시간이나 논리의 순서를 보임

표지는 발화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은"을 들은 순간 청자는 "아, 여러 개가 나오겠구나" 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면 듣기가 훨씬 쉬워져요.

💡 구조가 선명한 담화는 청자가 내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나 연설에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훨씬 명료하게 드러나고, 듣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 구조가 다르면 표지도 다릅니다

어떤 뼈대를 쓰느냐에 따라 어울리는 표지가 달라집니다.

담화 구조	어디에 쓰이나	자주 쓰는 표지
기술 집합형	정보를 전달하는 발표	예를 들어 · 또한
문제 해결형	해결책을 찾는 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만약
비교·대조형	주장을 겨루는 토론	물론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은 '물론'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대중 매체는 문화적 평등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화와 선정성의 문제는..."

'물론'으로 상대 주장을 인정한 뒤 '그럼에도'로 뒤집는 것 — 이게 설득을 위해 예상되는 반론을 먼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 표지를 보면 그 담화가 무엇을 하려는지 보입니다.

"예를 들어"가 나오면 설명 중이고, "만약"이 나오면 해결책을 따지는 중이고, "물론"이 나오면 반론을 인정하는 중입니다.

표지만 따라가도 담화의 뼈대가 그려져요.

⚠️ 셋을 구별하세요

응집성 — 내용이 한 주제로 모이는가 (무엇을)

응결성 — 형식 장치로 이어지는가 (어떻게 잇나)

담화 구조 — 전체가 어떤 뼈대로 짜여 있는가 (어떤 틀로)

구조 표지는 응결성 장치이면서 동시에 구조를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두 일을 같이 해요.

★ 그런데 교과서마다 용어가 다릅니다 ★★★★★

이 자리에서 한 번 정리하고 갑니다. 안 하면 반드시 헷갈립니다.

이 책과 대부분의 학교 문법 — 통일성(내용) / 응집성(형식)

일부 교과서 — 응집성(내용) / 응결성(형식)

같은 것을 다르게 부릅니다. '응집성'이라는 말이 어떤 책에서는 내용 쪽, 어떤 책에서는 형식 쪽을 가리켜요.

	내용의 문제	형식의 문제
이 책 · 학교 문법	통일성	응집성
일부 교과서	응집성	응결성

이름이 둘인 게 아니라 짝이 둘입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짝의 구조입니다. 담화가 좋으려면 ㉠ 내용이 하나로 모여야 하고 ㉡ 형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 이 둘이 필요하다는 게 본질이에요.

💡 시험에서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응결성'이라는 말이 보이면 → 그 책은 형식 쪽을 응결성이라 부르는 것이니, **응집성은 내용 쪽**입니다.

'통일성'이라는 말이 보이면 → 그 책은 내용 쪽을 통일성이라 부르는 것이니, **응집성은 형식 쪽**입니다.

한 지문 안에 둘이 같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짝을 보고 판단하면 틀리지 않아요.

⚠️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영어 용어를 옮기면서 같렸습니다. **coherence**(내용의 일관됨)와 **cohesion**(형식의 결속)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였어요.

통일성/응집성으로 옮긴 쪽과 응집성/응결성으로 옮긴 쪽이 갈린 겁니다.

학문이 아직 말을 하나로 못 고른 자리이고,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확인문제 0.5

1. 담화 표지가 하는 일을 한 줄로 쓰세요.
2. 화제를 바꾸는 담화 표지를 두 개 이상 쓰세요.
3. "그래서, 오늘 뭐 할 거야?"의 '그래서'가 접속 부사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세요.
4. 접속 표현과 담화 표지의 차이를 쓰세요.
5. 담화 표지의 두 갈래를 쓰고 각각 예를 드세요.
5-1.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차이를 쓰고, '준(準)'이 붙은 이유를 설명하세요.**
6. 담화 표지의 역할 여섯 가지를 쓰세요.
7. "다시 말해서 여가는 자유입니다"의 '다시 말해서'는 어느 역할인가요?
8. 요약과 부연의 차이를 쓰세요.
9. 응집성을 만드는 장치 다섯 가지를 쓰세요.
10. 시험이 쓰는 응집성 정의에서 장치를 어떻게 셋으로 묶는지 쓰세요.
11. 지시어도 대용도 없는데 앞뒤가 이어지는 예를 하나 만드세요.
12. 통일성이 없는 담화와 응집성이 약한 담화의 차이를 예로 설명하세요.
13. 담화 구조가 무엇인지 쓰고, 설득하는 담화와 설명하는 담화가 자주 쓰는 구조를 각각 드세요.
14. 담화 구조 표지가 하는 일을 쓰고, 예를 세 개 드세요.

STAGE 05 CLEAR

담화 표지와 접속 — 길잡이

다음 06 · 높임 · 호칭 · '우리' — 관계가 드러납니다

남은 것 5 / 10

담화를 이어 붙이는 장치를 전부 그리세요. 그리고 각각이 무엇을 하는지 한 줄씩 달아보세요.

힌트 — 다섯 개입니다. 0에서 십여둔 이름이 이 다섯을 묶습니다.

가리키기

대신 놓기

비우기

이어 붙이기

- 다 그렸나요? — 이제 확인하세요. 빠진 항목 옆의 번호가 돌아갈 단계입니다.
- ☐ 이 / 그 / 저를 가르는 기준 0.3

☐ '그'가 하는 두 가지 일 0.3

☐ 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그'인 이유 0.3

☐ 왼쪽·오른쪽이 뒤집히는 이유 0.3

☐ 대응 표현이 받을 수 있는 것 넷 0.4

☐ 상의어로 받기 · 거꾸로는 안 되는 이유 0.4

☐ '그렇다'가 대응인지 완곡인지 가르는 법 0.4

☐ 복원되는 생략 / 안 되는 생략 0.4

☐ 담화 표지와 접속 표현의 차이 0.5

☐ 응집성 장치 다섯 0.5

맞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집성을 봤으니 이제 관계입니다

CHAPTER 06	높임 · 호칭 · '우리' — 관계가 드러납니다
CHAPTER 07	인용
CHAPTER 08	발화의 기능과 간접 발화
CHAPTER 09	대화의 원리와 담화 관습
CHAPTER 10	담화 읽는 법 — 지문 앞에서

여기까지가 **담화를 묶는 장치**입니다. 맥락, 지시, 대용과 생략, 담화 표지.

뒤부터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입니다.

CHAPTER 08의 **간접 발화**와 CHAPTER 09의 **대화의 원리**가 이 책의 중심입니다.

"창문 좀 열어 줄래?"가 왜 의문문인데 요청인지,
지키면 좋은 예절이 아니라 대화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룹니다.

마지막 CHAPTER 10은 **시험 지문 앞에서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전체 138쪽 · 정답과 해설 · 백지 인출 페이지